

시론

방역은 안보다

유럽인은 어떻게 남미 제국을 제패할 수 있었을까?
 ‘총,균,쇠’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유럽인의 가장 큰 무기는 세균이었다고 단언했다. 1532년 스페인의 탐험가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제국을 침략할 당시 피사로의 군대는 고작 168명으로, 잉카 제국의 8000명 병사를 상대로 승리했다. 일찌감치 동물의 가죽화에 성공한 스페인의 병사들에게는 잉카 제국의 군사와 원주민들을 학살할 수 있는 병원균을 품고 있었다. 스페인에는 당시 천연두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천연두 균이 잉카 제국 군대와 원주민에게 전염되었다. 천연두 균은 천천히 잉카 제국 전역을 감염시켰고 결국에는 원주민 90% 이상이 죽어갔다.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광풍(狂風)이 휩쓸고 있다. 중국의 사망자만 3200명을 훌쩍 넘겼다. 하루 수십명의 생명이 스러져가니 사망자 수는 어디까지 늘어날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구에서 지역 감염자들이 속출하더니, 결국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팬데믹’(대유행)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3월 중순 즈음 우리나라도 8400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와 9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다.

기저질환자의 사망자 수를 제외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코로나19는 생명에 크게 치명적인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만약 코로나19가 치명적인 사망률을 가진 세균이었다면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 제국들이 세균에 의해 무너졌듯이 바이러스는 국가의 존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러스는 단순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외식이나 여행, 쇼핑 등 국내 소비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세균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공포와 불안을 확산시켜 국가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도 있다. 보건이나 위생 차원이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방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 ‘맘과 발자취’ 기록한 활동백서 펴내

한국자유총연맹 「2019 활동보고서」 발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은 지난 2월말 2019년 자총의 사업과 활동을 총정리한 『한국자유총연맹 2019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다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350만 전국 회원들의 맘과 발자취를 상세히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펼친 64,194회의 봉사활동과 1,300여 회에 이르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한 내용도 담았다.

총재는 발간사에서 “2019년 사업과 활동을 돌아봄으로써 2020년에는 더욱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민운동단체에 걸맞은 사업을 펼쳐 국민갈등 극복과 사회통합 기여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돕기 사랑의 마스크 보내기 캠페인

워싱턴D.C.지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돕기 ‘사랑의 마스크 보내기’ 캠페인에 재

외 한인들도 동참했다. 특히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측과 한인교회들이 동참하면서 성금모금 행사 및 관련 캠페인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문형 한국자유총연맹 워싱턴D.C.지부 회장(사진) 또한 지

난 3월 3일 동 캠페인에 참여해 소정의 기탁금을 보태면서 “우리 동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모국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총 워싱턴D.C.지부 차원에서 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Vol. 17 | 2020. 2. 29.

이슈와 통찰

발행인 | 박종환 편집인 | 김명환 발행처 | 한국자유총연맹 자유평화연구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갈등하는 합성어
신중섭

투표권 확대로 본 선거제도 발전의 역사: 18세 선거권과 선거 교육의 과제
장성훈

3월 주요 활동계획(3.15~4.14.)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서울	‘코로나19’ 예방 방역 봉사(시지부)	월중	시내 공공시설 등	20명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	월중	SNS홍보	회원/시민
부산	UN기념공원 환경정화(시지부)	3. 20	UN기념공원	30명
	2020 구·군지회 정기감사(시지부)	3. 31	각 구/군지회	4명
대구	‘세계 물의 날’ 계기 환경정화 활동(북구)	3. 20	하중도 일대	100명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 교육(시지부)	3. 26	경북공업고	80명
인천	구 회장단 간담회(미추홀구)	3. 26	지회 사무실	11명
광주	시 여성협의회 환경 정화활동(시지부)	3. 19	광주천 일대	35명
	푸른길 환경 정화활동(동구)	3. 21	계림동~동명동	30명
대전	탈북민 대상 물품 나누기 행사(중구)	3. 26	지회 사무실	10명
	여성회 복지관 방문 봉사(중구)	3. 27	성락종합사회복지관	6명
울산	청년협의회 자연보호 캠페인(시지부)	3. 21	남구 무거천	30명
세종	동네행복지킴이 봉사자 운영회의(시지부)	3. 27	지부 회의실	10명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경기	보육원 봉사활동(평택시)	3. 21	성육보육원	15명
	평화전망대 방문(용인시)	3. 28	강화도, 교동도	40명
강원	청년·여성회 우범지역 야간순찰(태백시)	3. 26	중앙초등학교	20명
	3·1절 건강 달리기 대회(고성군)	3. 29	고성군종합운동장	1000명
충북	여성회, 청소년 성폭력 예방 야간순찰(진천군)	매주 화	진천중·고 외	60명
	아동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순찰(청주시)	격주 토	창신·흥덕초 일원	6명
충남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성금 모금	3. 2~31.	지부/지회	500명
	‘서해 수호의 날’ 기념 현충원 참배	3. 26	대전 현충원	50명
전북	제5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군산시)	3. 27	군산시 여성교육장	300명
전남	조직간부 월례회의(목포시)	3. 24	지회 사무실	40명
경북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포항시)	3. 27	포항시 대잠홀	100명
경남	지역 사회복지관 급식봉사(진주시)	3. 26	솔밭사회복지관	10명
제주	지역 사회복지관 급식봉사(제주시)	3. 27	아라복지관	15명